전법교화 혁신, 어떻게 이룰까

현불논단



성제 박준석 교수
위덕대 불교문화학과

젊은 층 불자 비율이 두드러지게 감소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2030 세대의 탈종교 현상은 종교 인구의 고령화, 더 나아가 향후 장기적인 종교 인구 감소와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어린이·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층 신도의 지속적인 확보와 관리가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포교와 교화의 부진을 극복하려면 지속적인 도제 양성, 교화자·신교도의 정체성 확립, 종단 간 사찰경영 성공사례 공유, 도심 및 국제포교 활성화, 전통과 현대의 접점 모색, 불교문화의 대중화, 다양한 사교·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콘텐츠 개발, 생활불교·생산불교·참여불교 지향,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확충, 불교식 장례문화 개발 등 다양한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 종교의 생명은 포교와 교화이며 이것이 없다면 종단의 미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듯 미래 포교에 대한 수두룩한 대안만큼의 섬세하고도 과감한 실천이 좀처럼 뒤따르지 않고 있다. 그것은 왤까? 흡사 학령인구 감소의 암초를 만난 지방대학이 좀처럼 개혁의 뱃머리를 치켜세우지 못한 채 가라앉고 있는 것처럼, 젊은 불자 층 감소로 인한 불교계 내부의 활력은 심각한 수준으로 침체돼 있는 듯하다.

청소년들 사이엔 소위 '아신교(我信教)'란 말이 일종의 유행처럼 되고 있다. 세상이 흉흉하고 성

나를 믿는다는 '我信教' 유행 중
기성종교 필요 없는 세상 되는가
포교 교화없이는 불교 미래 없다

직자들이 세속인과 별반 다를 바 없으니 유일신도 필요없고, 부처님도 필요없단다. 그냥 자기 자신만 믿고 열심히 살기로 했다는 거다. 씁쓸하지만 마땅한 항변이 떠오르지 않는다. 더구나 코로나19의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면서 주말마다 '뭉치던' 숱한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비종교인의 지탄을 받았던가! 전염병 창궐의 인연에서는 소통과 화합보다 그야말로 격리와 고립이 무난한 해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시절 인연이 바뀌었지 않은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우리에겐 또 다른 교훈이 있었으니까. 타인의 행복한 웃음 속에 존재해야만 나 역시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 마스크로 가려진 우울한 일상 속에서 새삼 발견한 평범한 진리였다. 역시나 사람에게 종교는 필요하다.

종교의 울타리 안에서 많은 이들이 타인과 일상을 공유하고, 감정을 나누고, 또 세속을 넘어 진리와 생명의 세계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분명 AI시대의 미래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종교만의 고유하고도 성스러운 영역임이 분명하다.

진각성존 회당 대종사의 말씀처럼 "불법은 체(體)요, 세간법은 그림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의 불법은 세간법과 혼탁하게 뒤섞이고 얼룩져 종종 말법(末法)의 그늘이 드리우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다.

진각종에서는 1월 8~14일에 걸쳐 '은혜와 회향이 희망'이라는 총인의 새해법어 아래 전국의 종도들이 큰 원력을 모아 '갑진년 새해대서원불공'을 봉행했다. '심인(心印)'은 곧 부처님 마음이고 무상의 마음이며, 또 은혜로운 회향의 마음이다. 서로를 존중하고 상호공양할 수 있는 만다라 세계 구현을 통해 불교계 교화의 혁신이 앞당겨지기를 간절히 서원한다.

사적제재와 자비 윤리

세간과 출세간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사적제재(私的制裁)'라는 다소 생소한 용어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사적제재는 국가 또는 공공의 법률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사적 단체가 특정인에게 공개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고 보니 이러한 사적제재의 역사는 매우 길다. 국가와 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적제재는 일반 국민에게 통쾌감과 희망을 준다.

오늘날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사적제재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과거의 사적제재는 은밀한 성격이 강했는데 온라인 시대에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개적인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 죄를 지어 처벌받아 마땅한 사람이 교묘하게 죄를 은폐하고 피해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의 신상을 밝히고 유포하고 항의 전화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법 집행의 문제점도 거론하고 있다.

사적제재는 법률 체제와 집행이 정의롭지 못하거나 미흡할 때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순기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적제재의 문제점이 매우 많다. 오판의 위험, 무고에 이용 가능성, 자의적인 처벌, 법적 질서에 대한 불안정 등이 대표적이라 하겠다. 사적제재의 피해로 자살을 한 청소년의 사례도 있다.

유튜브 중심으로 이뤄지는 사적제재
오판, 무고 등 사적제재 부작용 많아
타자 향한 연민 바탕한 자비윤리 중요

사적제재의 문제는 결국 정의의 문제와 연결된다. 정의는 무엇이고 정의로운 사회는 어떻게 구현되는가? 필자는 붓다의 가르침을 정치철학의 측면에서 제시한 '연기론적 정의론'을 소개한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인도의 세계적 석학인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은 고정 불변한 정의론의 아트만(Atman)을 부정하고 '타자'와 함께 가는 '열린 정의론'을 주장한다. 붓다의 대기설법을 연상시킨다. 연기론적 정의론에는 '자비'가 바탕으로 자리잡고 있다. 자비의 윤리와 정의의 실천 사이에는 심각한 갈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의견도 꽤 있다. 자비는 희생의 윤리이며 따라서 부정의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달라이라마는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자비는 용기와 강인한 기질을 요구하며, 잘못된 행위를 비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을 용서할 것을 주문한다. 용서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위를 잊는다는 뜻이 아니다.

철학계 원로로서 〈자비의 윤리학〉을 저술한 고 박이문 교수는 자비를 '보편적 덕'으로 규정한다. 기독교의 박애와 유교의 인의 덕목은 자기에서 타자에게 보내는 덕목인 데 반해, 자비는 항상 타자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윤리라고 본다. 이렇게 타자에 대한 연민과 배려에서 나오는 자비의 윤리는 사회적 갈등과 폭력을 해소하는 보편적 규범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자비 없는 정의는 없고 정의 없는 자비도 없다. 정의로운 자비 공동체 구현의 큰 길이 불자 앞에 펼쳐지고 있다. 틱낫한 스님은 앞으로 오실 붓다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 예언은 현대불교가 나아갈 길에 많은 영감을 준다.

社 說

보스턴미술관 사리 환지본처에 부쳐

석가모니 부처님과 고려시대 고승의 사리가 100년 만에 환지본처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조계종 문화부와 문화재청은 2월 5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미술관을 방문해 미술관 소장하고 있는 사리 및 사리구의 환지를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협상을 통해 양측은 사리는 불교의 성물로서 올해 부처님오신날 이전에 조계종에 기증키로 했다. 사리구는 상호 교류 전시 및 보존처리 등을 위해 임시대여하기로 했다. 보스턴미술관에 소정된 사리구의 정식 명칭은 '은제도금라마탑형 사리구'로, 원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했던 14세기 고려시대 불교문화의 정수를 담은 불교 성물이다.

고려시대 불교미술 정수 담긴 사리구
안에 부처님과 고려 고승 사리 안치
2009년 시작한 논의 15년 만에 빛 봐
문화유산 환수, 全국민 관심이 원동력

사리구는 고려 말 나옹선사 입적 이후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양주 회암사가 원소장처다.

양주 회암사는 조선시대 보우 스님이 문정왕후 후원에 힘입어 조선불교 중흥의 기치를 휘날린 근본도량이었으나, 문정왕후 사후 유생의 보복으로 방화가 이어지면서 수많은 성보문화재와 전적, 사료 등이 모두 소실됐다.

회암사 유물인 약사삼존도는 국립중앙박물관과 일본 도쿠가와미술관 등에 보관됐고, 석가삼존도는 미국 뉴욕 버크 컬렉션이 소장 중이다. 청동발우와 지공 화상 비편은 경기도박물관과 동국대박물관 등에 전시돼 있고, 은제도금라마탑형사리구는 미국 보스턴미술관에 소장하는 등 성보문화유산 모두가 뿔뿔이 흩어졌다.

보스턴미술관 소장 사리구의 경우 2009년 불교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환수 운동이 일어났고, 미술관과의 지난한 협상이 이뤄졌지만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4월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미술관 방문을 계기로 환수 협상이 재개됐다.

이번에 기증되는 사리는 한국 불교사에서 많은 업적을 남긴 고려시대 지공 선사와 나옹 선사의 사리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 부처님오신날 이전 돌아오는 만큼 조계종은 여법하게 모신다는 계획이다.

해외에 소재한 한국 문화유산은 약 24만6000여 점으로, 일본이 10만9000여 점으로 가장 많고, 미국이 6만5000여 점으로 두 번째다. 영국과 독일, 러시아, 중국 등 29개국에 우리 문화유산이 나가있다. 이들이 모두 약탈되거나 불법 반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외교나 교류 차원에서 이뤄진 것들도 있다. 하지만 불교문화유산의 경우 성보로서의 특수성이 있어, 무단 반출됐다고 보는 게 맞다.

그렇기에 불교계는 어느 단체보다 문화유산 환지본처에 진심이다.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환수 중심에는 불교가 있었고, 북관대첩비 환수를 이끈 사람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스님이었다. 지금도 이천시와 이천불교계, 시민단체들은 일본 오쿠라호텔에 있는 이천오층석탑 환수를 위해 뛰고 있다. 문화유산 환수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다.

이번 사리 환지본처로 우리 문화유산을 다시 되찾는 환수운동에 국민과 불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현대불교신문
法보시 신청
부처님 가르침인 '佛法'을 보시하는
법보시 공덕은 보시 공덕 중 으뜸입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